

같이 등(燈)의 형태와 색깔은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생명이 바로 그 한 층차의 생명이라면, 그는 사람이 그 공간을 본 것과 같은 느낌이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처럼 분자도 에너지가 있지만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일체 또한, 눈을 포함하여, 분자입자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분자보다 낮은 더 큰 입자로 구성된 생명이라면, 마찬가지로 인체와 사람의 공간의 일체 물체가 빛이 있고 에너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위에서 말한, 태양이 없이도 일체가 모두 빛을 내보내는 공간과는 같은 개념이 아닌바, 그것은 바로 물체 자신이 빛을 내보내는 공간이다.

사람의 이 공간, 그것은 바로 정법을 위해 특수하게 만들어진 이러한 곳이기 때문이다. 삼계(三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완전히 달라진다. 삼계와 동등하게 존재하는 다른 더 많고 더 광범한 공간, 일체 물체들의 구조(結構)가 모두 변하게 되며, 인간세상과는 모두 다르다. 물체의 형식을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런 명암(明暗)관계와도 똑같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 이곳에서 표현된 명암관계는 사람에게 특수하게 만들어준 환경표현이다. 천상의 신과 아주 많은 천체에는 태양이 직접 비추는 광선이 없다. 그러나 또 아주 많은 천체에는 한 개의 태양이 비추는 빛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태양이 있고 어떤 곳은 태양이 없다. 생명이 부동한 층차에서 느끼는 빛의 강도 또한 다른바, 그들 역시 모두 부동한 층차의 빛의 존재형식에 부합된다. 수련생이 쓴 문장에서 삼원색과 眞(전)·善(싼)·忍(런)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련 중에서 자신의 감수이고, 眞(전)·善(싼)·忍(런)의 근본적인 실질이 아니다.

사람이 일단 천상의 정경을 보면 깜짝 놀람을 금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어떤 색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분자로 구성된 표면물질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지만, 분자보다 더 미세적인 입자로 구성된 것은 일반적인 사람은 다만 그것의 에너지를 감수할 수 있을 뿐이다. 분자보다 더 미세적인 입자로 구성된 이런 공간의 물질 색깔은 사람 이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 사실 분자도 에너지가 있으며, 아울러 에너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에너지를 생기게 하는 작용을 한다. 세인들이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세인의 신체구조·눈·피부와 혈액과 근육, 일체가 분자입자 한 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등한 층차에서 사람은 동등한 층차의 에너지를 느낄 수 없다. 미세적인 층차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 이 한 층의 물체로 구성된 입자 과립이 미세적인 입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여, 그 색깔을

것은 당신들이 잘 안배하면 된다. 어떻게 대법제자의 길을 걸어 나오는가 하는 것인데, 당신들이 오늘날 하는 어떤 일 이든 모두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잘하면 인류들이 배울 것이고, 당신들이 잘하지 못해도 인류는 역시 배우게 될 것인바, 그러므로 대법제자는 반드시 잘해야 한다. 당신들이 한 것이 좋지 않고, 바르지 않은 작품은 내놓을 수 없는바, 인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통적인 방법(手法)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표현해야 하고, 선(善)한 것을 표현해야 하며, 대법을 찬양하고 신을 찬양하는 것을 표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신들은 기교면에서도 수준을 내놓아야 하며, 정통적인 수준을 내놓아야 한다. (박수)

제자: 우리 어떤 대법제자들은 아주 좋은 구상(構思)이 있으며 또한 아주 좋은 생각도 있으나, 아주 좋은 기교(技巧)가 없습니다. 마치 대법제자가 하는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보(信息)와 자료, 구상(構思)과 기교(技巧)를 공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중대한 소재(題材)의 품질(質量)을 보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제자가 처음으로 전시를 하는데, 진정하게 우리 대법제자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크고 작은 편폭의 작품은 다 좋으나, 너무나 큰 작품을 전시하기는 비교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은 구상(構思)이 있고, 기교면에서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저는 아주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혹은 어떻게 그리는지도 모르므로, 종합했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부: 맞았다. 바로 이렇다. 당신들이 두 사람을 찾아서 구도(構圖)를 책임지게 하고, 가져와서 누가 그릴 수 있으면 그가 가져가서 그리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상(構思)의 시간을 줄인다. 기본적인 초벌로 대체적인 구상(構思)이면 된다. 당신들은 모두 기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며 할 수 있다. 내 생각에 이 생각은 아주 적극적이다.

나는 여기까지 말하기로 하겠다. 남은 일, 더 구체적인

구성하는 요소 역시 한 층의 입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고층 공간이 한 층 낮은 입자로 구성된 공간보다 더 밝고(明亮) 빛나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경지를 초월한 그러한 밝음이기 때문에 인간세상에서는 이러한 색깔을 찾을 수 없으며, 비록 형광색을 사용해도 표현해 낼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색깔로 그 한 경지의 신성함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인류의 현재 있는 색으로 화면구조와 장엄한 신의 자태(神態)를 표현할 수는 있다. 그의 형상에서, 구조에서, 사람의 염료로 여전히 표현해 낼 수 있다. 당신이 완전히 신의 일체로 신을 인간세상에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이 인간 세상에 온 것이다.

제자: 사부님께서 불(佛)·도(道)·신(神)의 그 옷 혹은 보편적인 그 장식(裝扮)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본 부처의 차림새는 바로 황색의 가사(袈裟)이다. 보살은 중국 고대 부녀의 그런 차림새로 그리면 되는데, 당신들은 송대(宋代) 부녀의 장식그림을 참조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백인형상의 신은 어느 세계든지 그들은 보편적으로 모두 한 조각 크고 하얀 가사를 둘렀고, 부처는 한 조각 크고 노란 천 가사를 둘렀으며, 흑인형상의 신은 한 조각 크고 붉은 천 가사

를 두르고 있다. 물론 더 다양하고 더 고층의 표현이 있는데, 어떠한 복식(服飾)을 하지 않은 이도 있다. 그리고 각종각양의 매우 원시적인 복식을 한 각종각양의 신이 있다. 작품 중에서 보편적으로 세인들이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면 족하다. 도(道)는 당연히 중국고대의 복식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도(道)이며, 사실 아주 고층의 그 대도(大道)가 입은 옷도 각종각양이다.

과거에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당신이 어느 때 어느 조대에 수련되었는지 원만할 때 입고 지닌 장식이 바로 그의 이후의 옷으로 되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랬다. 물론 부처는 다른바, 부처로 수련된 모든 이들은 반드시 부처의 형상이었고 부처의 그런 옷을 입었다. 다른 신(神)을 수련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련 성취하였을 때 어떤 것을 입었으면 이후에는 바로 그런 옷을 입었다. 당신들 중에서 누가 무당산(武當山)에 가 본 적이 있는가? 그 현무(玄武)의 초상화(畫像)를 보았는가? 현무의 초상화는 왜 머리를 풀어헤쳤는가? 그것은 그가 수련되었을 때 머리를 풀어헤쳤기 때문에 그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그 형상이다. 그는 오랫동안 산 속에서 가부좌하였고, 머리를 묶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끼고 묶지 않았으므로 수련되었을 때까지 그리하였다.

사부: 그렇다.

제자: 그러므로 줄곧 아주 감동적이며, 우리 대법에서 다룰 소재(題材)가 지극히 풍부하고 감격적이며, 눈물겹다고 느낍니다. 대법제자 예술가들 우리는 이런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느낀 것을 정말로 그리려고 할 때에는 역시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사부님께서 친히 설법(講解)을 해주셔서 우리는 아주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방향을 잡은 것 같은 감각이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문제 하나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그림전시를 조직하는 사람이 중대하게 다루어야 할 소재를 총체적으로 조금 조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상(構思) 중에서 그려야 하는 소재가 아주 많으며, 또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부: 당신이 말하는 협조(協調)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 어떤 사람은 생각을 더듬어 가는 길(思路)이 열렸으므로, 일부 밑그림(草圖)을 스케치하여 우리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 그리도록 하면 좋은바, 당신이 곧바로 구상(構思)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아주 좋다.

사부: 그럼 작은 제목으로 표현해도 아주 좋은바, 다 된다. 당신은 당신이 아주 작게 표현하고자 하며, 아주 큰 화면으로 하지 않고 아주 작은 화면으로 한다 해도 다 된다.

제자: 사부님, 천룡팔부(天龍八部) 호법(護法)은 어떤 형상입니까?

사부: 천룡팔부 호법은 석가모니가 말한 것인바, 그는 실제상에서 팔부중생(八部衆生)을 말한 것인데, 여덟 개 부분의 생명(生命)·생령(生靈)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안배한 것은 바로 천병천장(天兵天將)들이 호법(護法)하고 있으며, 또 용도 있는데, 이 두 부(部)이다. 물론, 개별적인 대법제자들은 또 개별적인 상황의 호법이 있다. 기타 부(部)의 호법은 모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타의 그 몇 개 부의 중생은 모두 정법(正法)중에 있으며, 남을 수 있는지, 걸어 넘어올 수 있는지는 모두 정법(正法) 후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부: 자네는 손을 몇 번이나 들었군.

제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법이 다룰 소재(題材)는 아주 많다고 느끼며, 이 몇 년을 지나와 대법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사부님, 고대 그림 속의 부처에는 옷을 입은 부처가 있고 어깨를 드러낸 부처가 있습니다.

사부: 어떤 때는 사람이 자신의 관념으로 부처를 그린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는 날씨가 아주 더워 스님들은 보편적으로 모두 어깨를 드러내며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시원하다. 조금 북쪽에서는 스님들이 천으로 또 오른쪽 어깨를 가리는데, 오른쪽 어깨를 가리니 춥지 않았다. 부처의 세계에는 이러한 개념이 없고, 보편적으로 그들은 바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이러한 옷차림이다. 중국인이 부처상을 그릴 때 중국인의 관념은 그 어깨를 전부 가리는 것이지만, 사실 신의 옷차림은 바로 이러하며 서방인 형상의 신 역시 한 쪽 어깨를 드러낸다. 이러한 옷차림은 소매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가리면 행동이 불편하다.

제자: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그림그리기를 배우는 데 그 기본기(基本功)는 왜 이렇게 배우기 어렵습니까?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그림을 배울 때 어떻게 하면 기법(技法)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습니까?

사부: 주로 서방국가의 교육이 소위 현대파 의식의 영향을 심하게 받으므로 학생의 기본기 훈련을 근본적으로 중시

하지 않는다. 아울러 아주 많은 교사·교수 모두 그 현대파  
들이고 그들 자신도 모르며, 그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상  
식을 모른다. 기본기를 장악함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간  
고한 훈련을 거쳐 비로소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물(靜物)을 그리는데, 구조와 투시관계를 장악해야 하  
며, 정물을 잘 그리려면 스케치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 다  
음 정확한 색채운용이며, 일보 일보씩 그림 그리는 기본 솜  
씨를 장악한다. 기본기는 한 화가·조소가로서 반드시 장악  
해야 하는 것이다.

제자: 중국은 무엇 때문에 오랫동안 모두 풍경화를 그렸  
습니까? 물론 중국에도 부처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 있었습  
니다. 다만 중국역사에서 대다수는 산수화를 그린 것입니  
다.

사부: 중국화는 의(意)를 중시함이라, 그것의 경지와 내  
포를 그리기 때문에 대다수는 모두 산수를 그렸다. 필경 중  
국인은 반신(半神)문화였기 때문에 의식 중에서 사람을 너  
무 많이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다. 역시 내가 앞에서 말한  
원인인데, 대다수는 산수를 그렸다. 그러나 또 사람을 그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고 완전히 구  
상해낸 것인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깨끗하였다. 물론,

서도 회화(繪畫)가 있는데, 전통적인 회화와는 무슨 관계  
입니까?

사부: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 시대의 조류가 끼치는 영향  
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주 많은 만화영화에서 그린  
그 형상은, 사실 내가 느끼기에는, 아주 추하며 일부 선  
(善)을 표현한 것도 선이 아니며, 형상만 놓고 말한다면 사  
실 아주 악(惡)하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한 것은 바로  
정념(正念)·선(善)·정통적인 방법(手法)으로 사람의  
바른 길로 되돌아 걸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대법제자  
는 미래의 세인(世人)에게 길을 개척해 주는 중에서 우선  
예술 중의 정념(正念)을 되찾아야 한다.

제자: 사부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회화창작  
과 음악창작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부: 모두 정념(正念)으로 창작해야 하는바, 나는 방금  
전에 음악창작을 하는 그들에게 말해줬는데, 방금 다 말했  
기에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들에게도 몇 시간이나  
말해 주었다.

제자: 스승님, 스승님이 말씀하신 선(善)을 저는 아주 큰  
장면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자: (번역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는 컴퓨터에서 설계를 하는데요, 자주 클로즈업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대법제자나 속인을 클로즈업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창작할 때 사람의 얼굴부분을 클로즈업할 수 있는지 등등인데, 좋지 않은 것인지, 표준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부: 괜찮은바, 클로즈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람도 모델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미적 표준이 있어야 하며, 사람의 관념상에서 좋다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제자: 스승님, 중국의 수련생은 이 방면에서 능력이 우리보다 큼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은 우리보다 좋은데, 그들이 일을 좀 할 수 없습니까? 바로 우리 중국의 수련생들은 마땅히 우리보다 잘 그린 대량의 좋은 작품이 있어야 합니다.

사부: 중국대륙의 수련생들은, 현재 우리는 기대하지 말자. 우리는 현재 중국대륙 이외의 각국에서 이 방면을 전공하는 대법제자들만 한다. 물론, 중국대륙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대법제자 천명을 찾으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현재 그곳은 사악한 박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자: 제가 여쭙고 싶은 문제는 현재의 영화·텔레비전에

진짜 사람을 전혀 그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역사상 일부 영웅인물·사람들이 기념하는 인물을 화가도 그렸는데, 근대에 와서 비교적 풍부해졌다. 사실 발견된 가장 초기의 중국화는 여전히 신을 그린 것이고, 아울러 사원에는 고대에서 지금까지 줄곧 모두 불(佛)·도(道)·신(神)을 표현한 그림이 있었다.

제자: 중국화는 선(線)을 위주로 하는 것이며, 색채가 아주 맑고 깨끗(淸淡)한데, 서양화는 색채를 아주 중시합니다. 우리 중국화는 색채에서 서양화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부: 아니다. 동양화는 바로 동양화의 특징이며, 마땅히 어떻게 그려야 하면 그렇게 그려야 하는데 당신이 고치기만 하면 그것은 아니다. 동양화는 바로 선(線)에 치중하고, 서양화는 선(線)을 그릴 수 없고 당신이 선을 그리면 틀리는 것으로, 그것은 명암으로 그림을 구성한다.

제자: 사부님, 우리는 사의(寫意)나 혹은 사실(寫實)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의 법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웃사람이 웃음)

사부: 나의 법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웃사람이 웃음)

그가 사상으로 한번 생각하면 당신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당신은, 나는 지금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사부님께 그리도록 해야지, (못사람이 웃음) 그건 안 된다.

제자: 그 때에 화기는 아마 초상(超常)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는 그림을 그릴 때 매우 초상적일 수 있습니다.

사부: 반드시 초상적인 것은 아니며, 어떻게 하든지 아주 이지적이고 아주 정상적이다. 마치 당신들이 대법을 수련하는 것과 같이 일체가 아주 정상적이다. 대법제자가 마땅히 그려야 할 것이면 당신은 마땅히 그것을 잘하면 되고, 어떤 상태로 들어간다는 설이 없으며, 또한 이런 생각이 없어야만 비로소 맞는 것이다.

제자: 사부님, 저는 부동한 사람형태(人形)를 그리려고 하는데 사부님께서는 흑인의 신은 붉은 가사를 둘렀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의 머리카락이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사부: 보편적으로 당신들이 서방의 신을 그리려면 르네상스시기의 미술작품을 참조할 수 있는바, 서방 르네상스시기 미술작품 중의 신의 형상이다. 성년남신(成年男神)은

말한 것이 이 문제이다. 중국 사람은 사의(寫意)에 치중하며 서방인은 표면의 정확한 표현에 치중하는데, 두 가지 부동(不同)한 수법(手法)으로 모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동방 그림 중의 신은 사람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데, 표현한 것은 신이기 때문이다. 만약 속인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서방 그림 중의 신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하여금 우러러 보게(敬仰) 하는데, 그러나 서방 그림 중에서 표현한 것이 속인이라면 사람이 보아도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국 그림 중에서나 조각상 중의 기법(技法)이 서방과 같이 역시 성숙·정확하다면 더욱 사람을 감동시키고 더욱 진짜 같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신의 작용 때문에 성숙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작품이 됐다고 볼 수 없으며, 완벽한 작품에다 신을 더하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신성(神聖)한 것이다.

제자: 그래서 그 기교(技巧)를 취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부: 나는 기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말한 것은 정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에 따라 그리되, 되도록 완벽한 예술이면, 이러면 자신에 대해서는 제고(提高)이며, 신에 대해서도 존경(敬重)이라는 것이다.



생하며, 장래에 수련성취하면 매 한 염주 알이 모두 법기가 되고, 전체 염주 또한 한 개의 법기가 되는데, 층차가 높은 이의 매 한 염주알 속에는 마치 한 개 세계처럼 무엇이든 다 있다. 각종각양의 물건이 모두 법기로 될 수 있다. 대법 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당신은 나는 법을 실증하는 글을 쓴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날마다 들고 있는 펜은 모두 공덕(功德)이 있는 것으로, 아마 당신의 펜은 장래에 모두 법기로 될 것이다. 수련인이 이용했던 물건은 일단 공덕이 있게 되면 모두 법기로 될 수 있는바, 당신들이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사용했던 화필(畫筆)도 포함된다.

제자: 사부님 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각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리스·로마, 그들의 그런 조각은 보기에는 아주 정확(精確)합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 와서 중국 당대(唐代)의 불상을 보면 저는 오히려 아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비례가 결코 사람의 신에 대한 공경(敬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사부: 그렇다. 佛(불)·神(신)의 상(像)에는 佛(불)·神(신)의 법신(法身)이 있으므로 물론 일반적인 조각상과 다르다. 그러므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내가 방금 전에

일반적으로 수염이 있는 이가 비교적 많았는데, 물론 수염이 없는 이도 있다. 부처는 일반적으로 수염을 기르지 않지만, 또한 소수는 수염이 있다. 흑인형상의 신은 흑인의 머리 카락과 같이 짧은 곱슬머리인데, 사람은 신이 자신의 모습에 따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 (번역문) 저는 저의 학교를 위해 그림 한 폭을 그리는데 주로 자화상입니다. 저는 그릴 때 마음을 써서(用心) 그리면서 되도록이면 관념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고 구도(構圖) 역시 마술처럼 더욱 좋게 변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문제는, 오로지 우리가 마음을 써서 그리면 잘 그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지도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사부: 엄격하게 말하면,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마음을 써야 한다. 당신이 마음을 쓰면 모두들 당신이 잘 그렸다고 말하지만 기본기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비하면 여전히 차별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느끼기에, 기본기를 조금 더 잘 연습하면, 대법제자는 더 잘 그릴 수 있으며, 후세사람들에게 한 갈래 바른 길을 남길 수 있다. 물론 마음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옳다.

제자: 제가 사부님 초상화(畫像)를 그릴 수 있습니까?

사부: 아이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상을 만들었고 상을 그렸지만, 결과는 모두 닳지 않았다. 그리는 것은 괜찮고, 문제가 없으며, 사진을 가지고 그려라.

제자: 사부님, 저는 아주 많은 수련생들이 정말로 사부님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다른 공간의 상(像)을 그려낸 것이 어떤 것은 닳았으며, 그래도 정말로 법신의 위력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려낸 상(像)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필경 사부님의 사진이고 그리고 그 밑그림(草圖)은요?

사부: 그 밑그림(草圖)은 태울 것이면, 태워버리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 정법시기라, 대법제자는 법을 실증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제자: 그럼 잘 그려진 것을 우리가 향을 피워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부: 그림으로서 보존하면 된다.

제자: 사부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서 사로(思路)가

를 들어 말하자면 이집트, 그리고 또 남아메리카의 마야문명 같은 것은 마치 우리가 인식한 불(佛)·도(道)·신(神)과 차이가 아주 큰 것 같은데, 그들은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사부: 그런 문명들은 존재한 적이 있다. 그 사람들이 믿은 것은 부동(不同)한 신인데 많은 것이 모두 바른 신(正神)이다.

제자: 사부님, 천상(天上)의 신수(神獸)에 관하여, 동방의 것, 또 동방의 신, 그들의 법기(法器)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부: 아, 당신은 마치 우주 중에 입자가 많은가를 물어보는 것과 같다. 그것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다. 법기는 어느 신이든지 다 있으며 한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수련해 올라가는데, 법기는 사람의 수련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상(和尚)이 늘 사용하는 사발·염주·목탁, 도(道)의 총채(拂塵)·보검(寶劍) 등등, 모두 사람이 수련함에 따라 법기로 될 수 있다. 승려는 가지고 있는 염주를 날마다 굴리며 염불을 하는데, 그의 총창(總槍)이 제고됨에 따라 손의 에너지도 커진다. 끊임없이 그것을 굴려 그 속의 에너지가 상당히 충실해지면, 염주의 본질에마저 변화가 발

연습한 것은 바로 초서라고 말하는데, 현재 나는 세인(世人)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제자는 반드시 똑발라야(正) 한다.

제자: 사부님, 당신께서 돈황벽화(敦煌壁畵)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부: 고대에 거기는 원래 큰 사원(寺院)이었는데, 건축은 모두 전쟁과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졌다. 돈황벽화는 바로 당대(唐代)를 전후하여 잇따라 그린 것이다. 그림 속의 어떤 것은 천상(天上)의 광경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교가 흥성한 시기에 그린 것으로 부처를 믿고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광경, 신의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사람은 그것을 그려내었다. 그러나 또 동방의 회화기술이 성숙되지 못한 영향으로, 서방예술과 같은 투시(透視) 관계와 형체구조의 그런 성숙함, 그런 정확함이 없다. 그러나 1, 2천 년 전에 능히 이런 기술이 있었으므로 역시 중국의 불교와 예술발전으로 하여금 아주 길고 긴 문화의 광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제자: 사부님, 저는 여쭙고 싶은데요. 기타 고대문명, 예

많이 퇴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문자로 있게 할 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는데, 역시 예술에서 아주 성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부: 내가 이번에 말한 법리를 정리한 후에 다시 말해보자.

제자: 저는 창작의 길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하여 원래 저는 머리가 온통 공백이었는데, 지금은 알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사부: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법이었다.

제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완전히 서양화를 배웠지만 저는 중국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럴 때 표현을 위주로 하고 전통적인 수법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은, 내가 기법에서 양자의 장점을 취하겠다고 말하는데, 아마 이전에도 시험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신은 해볼 수 있지만 조화로워야 하고, 보기에 감각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러나 시험한 후, 당신은 아마 여전히 진정으로 동서방의 그림문화를 한곳에 할 수 없음을 느

낄 것이다.

제자: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그림, 예를 들면 천사, 날개를 지닌 것처럼, 서방의 것과 동방의 것을 한 곳에 섞을 수 있습니까?

사부: 정법 중에서, 완전히 바른 면의 작용을 일으킨 신, 동·서방인 형상의 신과 각종각양 형상의 신이 모두 있다. 전적으로 당신의 화면 속에서 표현하려는 의의(意義)가 무엇인가에 달렸다. 다시 말해서 구도(構圖)에 따라 수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방인 형상의 신에는 날개를 지닌 이가 있고 날개를 지니지 않은 이가 있으므로 당신의 구도의 표현을 보아야 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낮은 층의 공간의 신, 그들은 내가 와서 법을 전하는(傳法)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구세력은 그들을 배치하여, 내가 어떻게 법을 전하고 사회는 어떤 상태인가를 좌우지하게 하였다. 물론 나는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았다. 법을 전할 때 내가 어떤 형상으로 정법하는가, 이는 못 신들을 놓고 말할 때 아주 큰일이었다. 부처와 도는 나를 위해 형상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그 당시 낮은 층차 중에서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는 것이 발생하였고, 도교(道敎)는 또한 이로 인하여 생겼다. 도는 나로 하여금 도의 형상을 선택하

일 수 있는데, 부동(不同)한 층차에는 모두 부동한 층차의 에너지·법기(法器)·공(功)이 있으며 정념이 강할수록 움직이는 능력도 더욱 크다. 또 어떤 수련생은 元神(원선)이 빠져나와서 몸을 떠날 수 있는데, 정법(正法) 중에서도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元神(원선)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련생들은 수련 잘된 그 일부분 신의 몸(神體)을 주재(主宰)할 수 있다.

제자: 불교 속의 그림은 아주 많은 경우가 불(佛)·도(道)·신(神)인데 참고할 수 있습니까?

사부 : 참고할 수 있다.

제자: 초서(草書)는 변이(變異)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린 후 그림에 간단히 써넣는 글은 반드시 해서(楷書)와 예서(隸書)로 써야 합니까?

사부 : 초서(草書)는 사람의 바르지 못한(負) 일면을 방임(放任)하는 것과 사람의 관념(觀念)을 위주로 한 상태에서 쓴 것이다. 나는 단정하게 쓴 글자를 좋다고 느낀다. 글자도 신이 사람에게 전해준 것인데, 이렇게 하면 신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것이다. 나는 다만 법리(法理)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은, 나는 초서만 좋아한다고 말하며 내가

할 때에는 에너지와 법기(法器)·신통(神通)을 움직일(調動) 수 있으며, 보통은 이렇다.

제자: 그렇다면 다만 거기에 앉아만 있습니까?

사부: 왜냐하면 주체(主體)가 없을 때에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체가 수련성취 된 후 주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스스로 움직인다면, 그 부분도 자신이 스스로 주인노릇을 하는(自主)것과 같지 않는가? 그럼 다른 한 생명이 된 것이 아닌가? 당신을 대신하고 되돌아와 조정한다면 그래서야 어떻게 되겠는가? 수련해낸 일체(一切)가 모두 당신이 아니라면 그건 안 된다. 그러므로 주체가 일체(一切)를 완성한 후에 한 몸(一體)으로 합쳐진다. 이렇게 말하자. 당신의 팔,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고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이 그래도 당신의 것인가? (웃사람들이 웃음)

제자: 그쪽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부: 진정하게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인간세상에서 법을 실증하는 당신들이며, 바로 당신이 여기에서 발정념(發正念)하고 당신이 진상(眞相)을 밝히고, 세인들을 구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념(正念)이 강하면 당신의 에너지를 움직

게 하려했고 나에게 도(道)로 도법(道法)을 말하도록 하려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도는 단독전수(獨傳)임을 알고 있었는바, 그럼 단독전수(獨傳)가 어떻게 중생을 구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법을 전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방법을 생각하여 또 지상에서 종교를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도교가 나타났다. 후에 도교 중에서 아주 많은 도들도 부처·보살로 나뉘어졌으며 천상에서도 정말로 도의 세계가 있게 되었다. 그들이 나에게 도의 형상을 선택하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부처 그쪽에서도 내가 부처를 선택하도록 여건을 만들었고, 마땅히 부처의 형상이어야 하며, 자비하고, 중생을 널리 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중국으로 전생하였는데, 내가 서방에서 전생하였다면, 그 백인형상의 신들도 여건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역사상 도(道)와 부처의 경쟁은 바로 이로 인하여 발생했다. 내가 나의 얻고자 하는 일체를 확정한 후 이런 형상의 경쟁은 계속되었다. 나 또한 구세력의 배치에 따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천상의 신은, 어느 종류의 신이든지 간에, 천상에 일이 있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상의한다. 예수가 지상에 와서 사람을 제도할 때도 못 신들이 협동(協同)하였는데, 지상에서 발생하는 큰일은 천상에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부처가 법을 전하려고 한다면, 다른 신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방금 전에 말한, 부처와 도가 고집 피우게 된 이런 일은 모두 지나갔고, 법을 전하는 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무슨 경쟁할 것이 없게 되었으며 모두 좋아졌다.

제자: 수채화는 중국화(中國畫)와 조금 비슷하고 유화와 조금 비슷한데, 어떤 작품은 수채화와 중국화로…….

사부: 수채화(水彩畫)를 배우는 기본기는 서방의 것인데, 그러므로 수채화는 여전히 서방의 화법(畫法)이다. 염료 그 자체를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수채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중국화를 그리는 데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신이 수채화로 중국화를 그려도 문제가 없고, 당신이 수채화로 유화의 그 화법을 그려도 문제가 없다. 수채 자체는 동·서방 화법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어떤 염료를 쓰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과 화법 자체와는 다른 것이다. 동·서방화 또한 색채표현에서 짙고 옅은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의 내포에 두 가지 문화가 받쳐주고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두 동·서방화의 결합을 시험했지만 사실 모두 실패했다. 중국화와 서방화는 표현상에서 화법과 염료의 기법문제뿐만 아니라 그림의 배후에는 모두 방

법제자가 부동한 공간에서 정법(正法)에 참여한 부동한 심태의 체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부: 모든 신이 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우주 중에서 다수 신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구세력을 제외한, 일부 완전히 사부의 요구에 따라 바른 면(正面)의 작용을 일으키는 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천병천장(天兵天將)도 호법(護法)하고 있다. 모든 신이 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른 신(正神)은 참여하고 있다. 당신은 그럴 수 있다. 대법제자는 정념 중에서神通(神通)과 공(功)을 움직일 수 있지만, 자신의 수련 잘된 신의 일면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제자: 대법제자가 기타 공간에서 정법(正法)에 참여하는데 그도 佛(불)·道(도)·神(신)의 형상인바, 역시 기타 佛(불)·道(도)·神(신)과 모두 같은 종류의 형상입니까?

사부: 형상은 그런 모습이다. 대법제자는 다만 속인 중에서 법을 실증(證實)하고 있으며, 그쪽은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발정념(發正念) 중에서 그쪽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다. 법을 실증(證實)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이쪽의 주체(主體)가 하고 있으며, 정념(正念)이 강

수업 숙제를 학교에서 평가할 수는 있다. 명혜학교의 학생은 물론 법을 배울 것이며, 미술시간에는 반드시 대법과 수련생을 그리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다만 공부와 숙제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학교의 미술수업에서 정식으로 학생들의 기본기를 배양하기를 희망한다. 사실상 기능이 없는 데 그려낸 신은 신을 추(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비록 마음 씀씀이는 좋은 것일지라도 말이다. 다른 각도로 말하자면 신은 함부로 그리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가? 그럴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의 장중함(莊重)·아름다움(美好)과 바름(正)을 표현해 낼 수 있겠는가? 물론 수련생을 그리는 것은 제외된다.

명혜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그림을 연습하고 싶으면 이것은 문제가 없으며, 잘 그린 것은 학교에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높은 수준의 작품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전시할 때는 정통적인 프로수준의 것을 내놓아야 한다.

제자: 그림 속에서 대법제자와 사부님께서 정법(正法)하신 장면을 체현(體現)하고자 하면 그려낸 것은 기타 공간의 불(佛)·도(道)·신(神)입니다. 구(舊) 우주의 모든 신은 정법(正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

대한 민족문화가 있다. 때 한가지 문화 중의 각종 기능은 모두 그 민족의 정체(整體) 문화의 결정체다. 동·서방문화를 완전히 한 곳에 혼합시켜 뿌리 없이 변이된 것으로 변화시켜 버리지 않는 이상, 사실 동·서방 그림을 한 곳에 그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제자: 우리는 천지개벽을 그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중의 구세력이 훼손되었는데, 그럼 좋은 것, 바로 그 천체(天體)가 좋게 변했다면 나쁜 것은 떨어뜨려지는데 그럼 이런 장면은, 가장 좋기는 신의 형상을 거기에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만 단순한 일부 색깔의 변화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장 좋기는 사부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일부 내용도 넣어야 되는지요.

사부: 추상적으로 그려서는 안 되며, 표현하고자 하는 이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바로 바른 길로 되돌아 걸어야 한다.

제자: 그 천상(天上)의 그런 신수(神獸)에 관하여 방금 전에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사자 또 일부 용·봉황이 있는데요. 그럼 용 같은 것을 말한다면, 용 무리(龍眾) 또 사부님이 경문에서 언급하신 붉은 색의 악룡(惡龍)같은 것, “붉

은 용의 목을 베다(赤龍斬)”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용도 구별이 있는 것입니까?

사부: 용의 외형은 같은 것이다. 용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악룡(惡龍)이 있으며, 좋은 용(好龍)·신룡(神龍)이 있다. 보통 보는 천국세계·부처세계(佛世界)의 용은 모두 금룡(金龍)이며, 금빛을 뿌린다. 한 가지를 설명해야 하는바, 동방문화에서 말하는 용은 서방문화에서 말하는 용과는 같은 종류의 생물이 아니며, 같은 물종(物種)이 아니다. 동방문화 중에서 용의 색깔도 부동하며, 어떤 것은 흑백의 물고기의 색깔과 같으며, 또 어떤 것은 빨간 것이 있으며, 노란 것·흰 것이 있으며 또 검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용도 층차의 구분이 있는바, 천룡(天龍)·지룡(地龍)과 물속의 용의 구별이 있다. 서방문화 중에서 말하는 그 용은 일종 지옥의 악한 짐승이다. 흔히 중국 사람들이 용을 말하면, 아주 많은 서방인들이 용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감각, 사실 그것은 동·서방문화의 차이이다. 서방사람이 말하는 그 용은 생김새가 약간 용머리(龍頭)같으며 가느다란 목·공룡과 같이 거칠고 큰 신체, 깃털이 없는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이런 생물은 서방인 형상의 신(神)의 체계 중의 저층(低層) 생물이다. 서방인 형상의 신의 체계 중의 그 지옥

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린 이런 표현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아주 기술적인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부: 그렇다. 화가는 바로 화가이고, 아이들은 바로 아이들인바, 아이들은 화가가 아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것은 화가를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지만 역시 화가와 같은 같지 않다. 잘 그리지 못하면 영원히 그릴 줄 아는 것이 아니며, 그릴 줄 아는 것과 그릴 줄 모르는 것은 영원히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학습을 해야 하며, 배우는 내용을 잘 배워야 한다. 현재 성인이 어린이에게 그려주는 그런 종류의 그림일지라도 역시 현대파가 있는 후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며, 과거의 그림책(連環畫)도 어린이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과거의 그런 종류의 그림책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린 것이었다.

제자: 그렇다면 어린이 그들이 대법의 것을 표현하려고 하면, 그들이 직접 표현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학원파(學院派), 반드시 기술성이 있어야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사부: 아이는 그림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연습그림을 성공적인 작품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학교 미술



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사부: 지상에서 사람을 제도하는 자가 도를 말할 때이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녀들은 꽃을 뿌린다. 아주 많은 수련생들이 보았듯이, 사부가 매번 설법할 때 그녀들은 모두 꽃을 뿌리고 있다. (박수) 그녀는 중생들을 격려하는 것이며 당신들에게 꽃을 뿌려주고 있다.

제자: (번역문) 저는 다른 공간의 신을 자주 보지 못하는데요. 보더라도 그다지 똑똑히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비로소 자신이 그린 것이 정확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신을 그릴 때 무엇을 그려야 합니까?

사부: 보통은, 대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형상인지를 아는데, 이것이 바로 기초이다. 당신들 주위에 아주 많은 대법제자들이 각종 광경을 본 적이 있는바, 당신들은 그들이 한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자연적으로 화면의 구조와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자: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동 그림으로 말하자면 어린이들은 가장 순진하고 가장 천진하지만 그들은 기술을 모

속의 용, 그것은 음화(陰火)를 뿜어낼 줄 안다. 사실 내가 보니 과거의 사람이 번역하는 중에 대응을 잘못시킨 것으로, 그 짐승을 용으로 불렀는데 그것은 동방의 용과 같은 것이 아니다. (서양인 수련생에게 물으심: ) 당신들이 말해보라. 서방인의 이 용에 대한 개념은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지 않은가? (답: 그렇습니다.)

사실 같은 종류의 생물이 아니다. 서방의 천국세계 속에는 보통 동방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용이 없는데, 그것은 그 체계의 생물이 아니다. 게다가 백인 형상 신의 체계는 지상의 백인 사회와 대응되는데 줄곧 더욱 낮은 공간에 이르기까지 대응되며, 이 체계 속에서는 용을 말하지 않으며, 이런 종류의 동물의 체현(體現)도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아주 많은 생물은 동방인 형상의 신의 체계 중에는 또 없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서방은 과거에 지상에 한 짐승이 있었는데, 말의 하반신·사람의 상반신이며, 이것은 동방세계 체계 속에서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만 문화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 체계 속에는 없는 것이다.

제자: 사부님 저는 한 가지 문제를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유화(油畵)를 그림니다. 그림 좋은 그림 한 폭을 그리려면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 생각

에는 해야 할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부: 정진(精進)하는 대법제자들은 모두 매우 바쁘다. 정법시기(正法時期)에 진상(真相)을 밝혀야 하고, 중생을 구도(救度)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은, 우리 이런 특수한 전문적인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또한 이런 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이런 작품을 창작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나는 아주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러나 켄츠은바, 당신들은 되도록 당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그리면 된다. 하지만 시간을 너무나 길게 끌지 말라. 되도록 가서 그리되어 어느 정도 잘 그려졌으면 우리는 그때 가서 전시를 한 번 하자.

제자: 사부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관계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부: 그렇다. 그럼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안배하라. 내가 당신들에게 하라는 것도 모두 다른 사람과 미래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남겨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며, 당신들 자신의 수련(修煉)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또한 이

는 가이드의 소개를 들었는데, 모나리자 이 한 폭의 그림을 소개할 때, 그는 이전의 신을 말하면서 모나리자는 이전의 신의 일종 형상을 대표하였다고 말하면서, 신은 어떠한 장식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부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부: 이 그림 것은 사람이지만 신이 아니며 또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속의 그림자는 아주 선하지 않다.

제자: 가이드는 이전의 귀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귀족들은 이전에 어떠한 것을 장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부: 다 사람이 말한 것으로 관광 안내 글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천상(天上)의 아주 많은 신들은 귀걸이를 한다. 천상의 여신(女神)은 귀걸이 등 장식물을 하는데, 그것 또한 법기(法器)이다. 서방인 형상의 신, 여신 몸의 장식은 아주 적은 것 같다. 보살의 장식은 비교적 많은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신은 모두 목걸이가 있으며, 보살은 또 큰 염주가 있는데 아주 길다.

제자: 사부님, 선녀가 꽃을 뿌리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그녀들이 입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당신들은 상상하지 못한다. 당신들이 알다시피, 중국의 여자 아이들이 문화대혁명 때, 가장 입기 좋아한 것은 초록색의 군복이었는데, (못 사람들이 웃음) 그녀들은 초록색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변해서 왔다. 내가 말하는 뜻은 바로, 부처는 부동한 시기의 세인들의 관념에 따라 나타내 줄 것이다. 사실 부처의 본래형상(本象)은 바로 노란 가사·파란색의 곱슬머리이다. 물론 고대시기의 조각상과 회화는 현재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 당시 그린 불상은 온 눈에 가득 찰 정도로 장식이 많았는데, 그것 역시 그 당시 사람의 관념에 따라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만약 능히 부처의 본래형상을 볼 수 있을 때에는 또 부처의 세계와 불체의 빛남(光輝)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수승(殊勝)한 나타남이다. 신은 일부러 변화하여 나타내 준 것이다.

제자: 우리가 현재 그린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사부: 당나라 때 그린 불(佛)·보살(菩薩)의 옷차림과 장식물은 비교적 많았다. 당나라 그때의 화상(畫像)에 따라 그리고 싶으면 그러도 된다.

제자: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반년을 머물렀습니다. 저

시대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사람의 관념은 바로 이러한바, 모두 큰 염색 항아리 속에 있는데, 우리 이런 특수한 기능이 있는 이들은 틀림없이 이 방면에서 받은 영향이 다른 사람보다 클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창작하는 중에서 바른 길로 되돌아 걸어오는 과정이 자신을 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술상에서 자신을 되돌아 승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본질상·관념상에서 자신을 개변시키는데 자신을 수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자: 저는 어제 사부님께서 회의장에서法輪(파룬)을 돌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매우 격동적(震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광경을, 저 혼자만 생각한 것인데요, 그것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부님께서 양복을 입고 계셨는데 너무 직접적·세부적입니까?

사부: 그리는 것은 그럴 수 있으며, 양복 입은 것도 괜찮다.

제자: 사부님, 저는 두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는 많은 신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신, 물론 수련생들이 수련성취하면 모두 부동(不同)한 불(佛)·도(道)·신(神)이 되며,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수련 잘한 많은 동수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마 어떤 이들은 이미 대단히 수련을 잘했을 것인바, 우리는 모두 그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부님이 언급하신 많은 기타 정교(正敎)가 신앙하는 신 그리고 불교도 많은 바른 신(正神)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해도 됩니까?

사부: 대부분은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자. 불교 중에서 언급한 신(神), 현재 사람이 능히 알 수 있는 불교 중에서 말하는 그런 불(佛)·보살은 다 된다. 노자(老子)·도(道), 여호와·예수·성모마리아도 모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證實)하는 중에서 대법과 무관한 신을 표현한다면 어떠한 의의(意義)도 없다. 당신들이 무엇을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이것은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제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르네상스 시기의 일부 경전 작품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최후의 만찬』 등등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런 작품들은 공정이 아주 큼니다. 저는 우리도 아주 좋은 작품이 남겨지기를 희망하는데 그러나 그들과 같은 형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구상(構思)이 아주 좋아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여, 시간이 있어야 하고, 또 아주 많은 여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이런 공정을 잘 하려면, 총체적으로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사부: 아주 크게 생각하였다.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거해 창작하라. 당신들은 시작이며, 만약 당신들이 능력이 있으면 당신들은 하고, 당신들이 하지 못하면 이후의 사람이 반드시 할 것이다. 인류는 반드시 대법(大法)에게 휘황(輝煌)을 창조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은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박수)

제자: 사부님, 제가 느끼기에 중국 그림 중에서 부처의 형상은 장식이 아주 많으며, 아주 예쁘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그린 것은 모두 다 아주 간단한데 제가 보기에는 예쁘지 않습니다.

사부: 착안하는 점이 같지 않은바, 사람 여기에서의 표현은 바로 이러하다. 부처는 부동한 시기에 부동한 시기의 사람에게 부동한 시기의 옷차림을 나타내 준다. 내가 법을 전하는 초기에, 아주 많은 보살(菩薩)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